

# 과학기술의 힘! 대한민국의 힘!

글 | 김 현 \_ 본지 기자 hkim@kofst.or.kr

“**창**의적 과학기술의 확보 없이는 우리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 아래, 새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부터 강도 높은 과학 기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2006년 현재 GDP 대비 3.23%에 머

물고 있는 국가 R&D투자를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늘려갈 것이다. 연구개발투자가 자주기술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제41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대전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과학기술진흥유공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강도 높은 과학기술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월 21일 오전 대전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내 대전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 41회 과학의 날 기념식 자리에서다.

### 한승수 총리, "강도 높은 과기 정책 추진" 밝혀

한 총리는 이날 1천여 명의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기초·원천연구비중 확대, 바이오, 나노 등 미래 유망기술 발굴,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 극지, 해양 등 거대과학 역량 강화, 연구중심대학 육성 과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의 연계시스템 구축, 과학영재학교 확충,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재외 우수과학자 적극 유치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과학기술인이 한 자리에 모인 이날 기념식에서 '교육과 과학의 융합'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최근 세계 경제 환경을 언급한 뒤 "이런 때일수록 과학기술이 더욱 힘을 발휘해야 하며 결국 핵심 인재를 키우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교육과 과학기술 담당부처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킨 이유도 우리의 미래인 교육과 과학을 융합시킴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창조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 일류국가의 비전도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장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과학기술계, "신명나는 연구여건 조성" 요구

이날 대회를 주관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기준 회장(사진)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과 과학기술 업무의 융합을 통해 교육의 과학화,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있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임을 뜻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하자는 새 정부의 '창조적 실용'이라는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부처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 제 41회 과학의 날 기념식



과학의 날 포스터

이 회장은 “새 정부가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과학기술인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며,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세계 속에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우리 함께 힘차게 열어 가자”고 독려했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과학기술 훈장 및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과학기술 진흥유공자 83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우수과학어린이 5천675명, 우수과학교사 260명, 과학기술 유공자 208명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도 수여됐다.

### 자기부상열차 개통식 열려

한편 이날 대회가 열린 대전시는 과학의 날 기념식 행사에 맞춰 자기부상열차 개통식과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개관식을 가졌다. 한승수 총리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기준 과총 회장을 비롯한 오 명 전 과기부총리,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등은 첫 개통된 자기부상열차를 타고 국립중앙과학관을 출발, 과학의 날 기념식 행사장인 엑스포 과학공원까지 1km 구간을 이동했으며, 행사장인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개관 테이프 커팅을 한 뒤 기념식에 참석했다.

자기부상열차는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15년 만에 일반 운행이

재개됐으며,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은 기존의 대전컨벤션센터와 함께 대덕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의 산학연 교류센터를 통합, 대전이 지향하는 동북아 R&D 허브도시의 인프라 기능을 맡게 된다.

### 최고과학기술인상, 유공자 훈포장 및 표창 수상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 원이 수여되는 2008년도 ‘제6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김기문 포항공대 교수(이학 부문), 민계식 현대중공업 부회장(공학 부문), 최양도 서울대 교수(농수산 부문), 송호영 울산의대 교수(의·약학 부문)가 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1968년부터 시상해 온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지난 2003년 과학기술부가 확대·개편한 상으로 이학, 공학, 농수산, 의·약학 등 4개 연구 부문에 걸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연구자의 업적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자격 요건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 평가 및 분야별 심사를 거쳐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2008년도 과학기술 진흥유공자 훈·포장 및 표창은 과학기술 훈장 29명, 포장 8명,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이 24명에 걸쳐 수여됐다. 과학기술 훈장 1등급인 창조장에는 윤기현 연세대 명예교수, 성낙호 미국 터프츠대학교 교수, 김제완 과학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3명이 수상했고, 2등급 혁신장에는 이일항 인하대 교수, 배영호 (주)코오롱 대표이사 사장, 이재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허성광 맥스파워(주) 대표이사 사장, 바르네케 독일 슈투트가르트대 명예교수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㉔

## 2008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포상자

### ■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김제완 (金濟完 · 76) 과학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낙호 (成洛昊 · 68) 미국 터프츠대학교 교수  
 윤기현 (尹冀鉉 · 69)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배영호 (裴榮昊 · 64) (주)코오롱 대표이사  
 이일항 (李一恒 · 61) 인하대학교 교수  
 이재천 (李在天 · 5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  
 구원  
 허성광 (許成光 · 67) 맥스파워(주) 대표이사  
 바르네케 (Hans-Juergen Warnecke)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교 명예교수

### ■ 과학기술훈장 응비장

강신원 (姜信源 · 6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박동욱 (朴東旭 · 55)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안승호 (安承鎬 · 61)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중앙연구소 소장  
 오태광 (吳太廣 · 5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  
 구원  
 이덕환 (李惠煥 · 54) 서강대학교 교수  
 이 인 (李 仁 · 59)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고태국 (高太國 · 53) 연세대학교 교수  
 국일현 (鞠益鉉 · 60)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본  
 부장  
 기 준 (奇 浚 · 62) 前 (주)케이피케미칼 대표이사  
 박수문 (朴壽文 · 67)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상욱 (李商郁 · 59) 서울대학교 교수  
 최병익 (崔炳翊 · 53)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본  
 부장  
 현동석 (玄東石 · 58) 한양대학교 교수

### ■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노동석 (盧東錫 · 5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  
 구원  
 민병무 (閔丙武 · 5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  
 연구원  
 박상덕 (朴商德 · 56)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윤성희 (尹聖熙 · 61) 테라급나노소재개발사업단  
 감사

이진구 (李鎭九 · 62) 동국대학교 교수  
 최인성 (崔仁成 · 6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성민 (韓城敏 · 45) (주)에치케이씨 대표이사  
 파파라도 (A. Neil Pappalardo)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

### ■ 과학기술포장

김세권 (金世權 · 60) 부경대학교 교수  
 문승현 (文昇鉉 · 51)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민병주 (閔丙珠 · 49) 한국원자력연구원 교육센  
 터장

박완철 (朴完澈 · 5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  
 구원

백희영 (白喜英 · 58) 서울대학교 교수  
 이윤우 (李潤雨 · 4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주광  
 학연구단장

임철호 (林澈虎 · 5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스마트  
 무인기사업단장

조영호 (曹永昊 · 51)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 대통령포장

강문석 (姜文錫 · 4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화팀장

김봉진 (金奉鎭 · 53) 한국화학연구원 책임기술원

김태근 (金泰根 · 42) 고려대학교 교수  
 문 희 (文 熙 · 53) 전남대학교 교수  
 박세문 (朴世文 · 53) (사)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  
 협회 부회장

성영은 (成永恩 · 44) 서울대학교 교수  
 손경종 (孫敬宗 · 43) 광주광역시 지방공업주사

오용수 (吳龍洙 · 49) 삼성전기(주) 상무  
 윤현도 (尹顯道 · 42) 충남대학교 교수  
 이만형 (李萬炯 · 62) 부산대학교 교수

이의신 (李義信 · 53) (주)대우건설 수석연구원  
 이해우 (李海雨 · 45) 동아대학교 교수  
 이현우 (李賢雨 · 50) (주)유니크 연구소장  
 이희웅 (李熙雄 · 53)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응용연  
 구단장

조정현 (曹章鉉 · 52) 나노종합팩센터 기획부장  
 주국영 (朱國英 · 51) 성수여자고등학교 교사  
 홍사혁 (洪思赫 · 56) (주)에니텍시스 대표이사  
 황인희 (黃仁禧 · 5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HP개  
 발실장

### ■ 국무총리포장

김구영 (金九永 · 5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팀장  
 김도중 (金道中 · 53) 경상남도 창원시 지방행정  
 주사

김동성 (金東成 · 55)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범 (金相範 · 4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  
 구원

김석중 (金錫中 · 40) (주)이디 이사  
 김승호 (金勝鎬 · 4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로터  
 팀장

김영진 (金玲鎭 · 5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  
 구원

김인수 (金印洙 · 51)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진국 (金鎭國 · 55) (주)하이닉스반도체 상무  
 김현웅 (金賢雄 · 42) 금호타이어(주) 수석연구원

김홍식 (金弘式 · 51) 한국과학문화재단 실장  
 남길수 (南吉洙 · 4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  
 구원

박선희 (朴善熙 · 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여영구 (呂榮九 · 53) 한양대학교 교수  
 원무호 (元武鎬 · 50) 한림대학교 교수

이상철 (李祥喆 · 52) 한국기계연구원 책임행정원  
 장관식 (張貴植 · 39) 나노캠텍(주) 연구소장  
 장남순 (張男洵 · 44) (주)케이일에스 대표이사

제갈중건 (諸葛鍾健 · 48)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  
 구원  
 조준형 (趙準衡 · 50) LS전선(주) 전무

조흥래 (趙興來 · 53) 한국도κι맥유공업(주)  
 대표이사

주천기 (朱天基 · 52) 가톨릭대학교 교수  
 홍재민 (洪宰珉 · 4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  
 구원

홍혜숙 (洪惠淑 · 51) 경기도 연천군 지방행정사  
 무관

2008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4인

김기문 · 최양도 · 송호영 교수, 민계식 박사

**김**기문 포항공대 화학과 교수와 민계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최양도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송호영 울산대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등 4명이 제6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이들 4명을 2008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해 대통령 상장과 함께 상금 3억 원을 각각 수여했다.

쿠커비투릴 상용화 적극 앞당길 것



김기문 교수

김기문 교수는 대학시절 도서관에서 주기적으로 학술잡지를 정독하는 습관에 힘입어 우연히 분자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후 그의 학문적인 호기심은 즐기차게 이어져, 오늘날 그가 쿠커비투릴에 기초한 초분자 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과학자로서 입지를 굳히게 만들었다.

쿠커비투릴이라는 낯선 분자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독일에서 최초로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1981년 미국의 화학자 모크 교수가 X-선 회절법을 이용해 그 구조를 최초로 확인하였고, 호박과 비슷하다며 명명한 쿠커비투릴을 주인분자로 이용하여 '주인-손님' 화학을 연구하였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 세계적으로 소수의 학자들만이 연구를 진행하던 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한 김 교수는 초분자화학자로서 본격적

으로 매진하게 된다. 그를 선두로 지금은 각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당시의 지도학생들은 몇 년 동안 술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은 채 초지일관 연구를 이어갔다. 마침내 오랜 연구 끝에 쿠커비투릴의 동족체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주인-손님 화학을 정립하게 된다.

그는 1997년 창의적 연구진행사업 즐기형과제의 책임자로 선정되면서, 당시 IMF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하며 목표를 견지해 나갔다. 그의 즐기찬 노력은 2000년 영국에서 내로라하는 초분자화학자들과 어깨를 견주며 세미나에 참여하는 기회로 뻗어간다. 이러한 국제학회에서 얻은 자신감은 그의 학문세계를 더욱 정련시키게 된다. 그는 당시의 발제문을 수정해서 2003년 권위 있는 국제화학지에 논문을 실었다. 그의 쿠커비투릴 연구는 더욱 발전하여, 의약, 식품, 화장품, 농약 및 회합물의 분리 등, 산업적으로 중요성이 큰 분야로 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쿠커비투릴 연구는 비단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김 교수는 "쿠커비투릴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바이오와 나노기술에 적극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쿠커비투릴을 개발함으로써 상용화를 이루어 의미 있는 발표를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 교수는 연구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고충을 호소했다. 첫째, 연구프로젝트가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서 도약과제로 변경되면서, 연구비 지원 규모가 전에 비해 축소되어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허를 출원할 때 선진국 대학의 경우 연구자들은 순수하게 연구만 할 뿐 특허출원과 이에 기초한 사업화에 관한 일은 관여할 필요가 없는 반면, 한국의 경우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학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투자"라고 피력했다.

## ‘마라톤맨’ 이 여는 기술강국의 미래



민계식 부회장

민계식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기술개발을 통한 세계 제1위의 조선해양강국을 유지하려는 포부를 안고 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중공업 분야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는 업적을 이룩한 것 못지않게 독특한 삶으로 세간에 주목을 받아왔다.

자신의 한계를 냉철하게 시험하며 경주 내내 자신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마라톤은 그의 독특한 경영철학으로 이어져서 ‘마라톤 문화’를 정착하게 된다. 유달리 강한 근면함은 국내 100대 기업의 CEO 가운데 그를 근무시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기록시켰다. 그는 “평사원들과 더불어 마라톤을 하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데다, 사내에 마라톤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제일주의 최고경영자’라는 별명을 듣는 것처럼 R&D에 대한 투자를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실례로 그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 온갖 예산이 삭감될 때도 현대중공업의 R&D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 그는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의했지만 거절한 것에 대해 “연구개발한 것과 설계한 것이 제품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 산업계를 떠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수상소감에 대해 “앞으로 더욱 연구에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이해한다”고 겸손하게 밝혔다. 또 우선 지금의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정예요원을 양성하여 일을 맡긴 후, 자신은 인류에 더욱 공헌할 수 있는 분야를 공부하며 제2의 연구인생을 영위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유럽에는 ‘발명을 하려면 고등교육을 받지 말라’는 비유적인 속담이 있다. 발명은 복잡한 이론보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많이 출발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는 한국 고유의 디젤엔진이 없었고 기술을 도입해서 만드는 것뿐이었기에 막대한 기술로가 유출됐다. 그러한 제품들이 갖는 국제특허를 먼저 조사한 후 특허권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더욱 간단하고 신뢰성이 있는 디젤엔진 고유모델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하는 세계 일류상품이 되었다.”

그는 또 “저건 내 전공이 아니라며 전공 아닌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폭넓게 알아야 한다. 과학기술의 기본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결국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므로 철학, 역사, 예술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틈틈이 책을 읽어야 수준 높은 지도급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면 인내심과 열정, 체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계인으로서 40년 넘게 수많은 논문과 특허를 출원한 박학다식한 CEO로서 이른 그의 업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인내와 영혼으로 단련된 자기세계를 정립하면서 사업에 혼을 불어넣는 그의 연구는, 끊임없는 연구와 선도적인 사업의 조화를 시사해주는 듯하다.

## 세계 일류 의료기술로 세계에 나서다



송호영 교수

불의의 사고나 각종 염증으로 인해 소변을 볼 수 없는 환자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희망을 안겨준 송호영 교수는 세계적인 방사선과 학자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요도절개수술 뒤 재발해서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에게 100%에 가까운 놀라운 완치율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

요도를 뚫기 위해 요도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요도에 그물망을 넣는 시술을 실시했다. 연락이 두절된 한 명의 환자를 제외한 총 12명의 환자들이 완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러한 고무적인 임상결과를 권위 있는 방사선의학 분야 학술지 ‘메디올로지’에 게재했다.

의료 선진국에서도 그물망으로 요도를 뚫어주는 시술을 그 동안 해왔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물망 사이로 조직이 다시금 자라나 요도가 또 다시 막히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송 교수팀이 개발해낸 그물망은 팽창성이 있는 금속으로 제작함으로써 생체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과 테프론으로 감싸서 2개월 후에는 쉽사리 제거 가능하도록 나일론을 부착했다. 또한, 지름 3mm의 갈고리를 이용해 그물망을 쉽사리 없앨 수 있어서 외부괄약근이 손상되는 것까지 막아준다. 이처럼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그의 시술법은 고통

## 제 41회 과학의 날 기념식

받는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가을 소화기인터벤션학회를 발족시켰다. 송 교수는 '사람의 향기가 나는 초일류영상 의학'에 기쁨과 영광을 넘기고 싶다고 하며,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는 병원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

그는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에게는 풍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욱 안락하게 대하며 시술이 쉽고 또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생각과 노력을 향후 국제시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그 동안 불철주야 임상진료와 연구를 분주하게 병행하면서 2000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교수벤처를 만들어 운영했던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진료와 연구, 교육, 중소기업 창립 및 운영을 한꺼번에 해야 해서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애를 먹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교수벤처를 만든 이유로 "연구비 지원에만 의존한 연구는, 우수인력의 지속적 확보가 어려우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수렴이 잘 안 되고, 연구의 연속선상이 부족하기에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식도, 위장관, 눈물관, 혈관, 요도, 기도, 담도 등 인체 내 여러 장기의 악성 또는 양성 협착증을 개복수술 없이 치료하는 새로운 이론을 확립하고 싶으며, 팽창성 금속스텐트 연구기반 조성'과 이를 통해 세계적인 지위를 확립하는 것을 더욱 확대 발전 시키겠다"고 밝혔다.

### 농업의 새로운 혁명을 개척하는 농학자

오늘날 한국에서는 유전자 재조합(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



최양도 교수

감과 냉소가 가득하다. 하지만 식량위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치안까지 위협하는 요즘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금 일고 있다.

최양도 교수는 한국에서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한 이유로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보도

하지 않는 일부 미디어를 지적했다. "선정적인 기사로 이슈를 끌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이 지니는 부정적인 속성을 전후 맥락 없이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일반 대중은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반감을 갖게 된다."

얼마 전 한 NGO가 미국이 최빈국에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원조한다고 비판했는데, 이 점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국내외에 상관없이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가운데 80% 이상이 유전자 재조합 식품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수확량이 기대만큼 많지 않다는 주장에도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전자 재조합 작물은 해충저항성을 강화하였으므로 농약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재배한 다른 농작물에 비해 결코 수확량이 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유전자 재조합 작물은 해충저항성과 제초제저항성을 갖게 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반환경적이라는 막연한 주장에도 일침을 가한다. "그 동안 농사를 짓는 방법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었다.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파종 전에 막대한 양의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은 인간의 먹거리에도 유해할 뿐만 아니라, 땅을 갈아엎은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므로 지구온난화에도 일조한다. 하지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개발해낸 무경운농법은 토양유실과 온실가스를 다 같이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농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무턱대고 유전자 재조합이 환경과 인간에게 해를 가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최 교수의 꾸준한 연구는 마침내 결실을 이뤄 초다수확성 생명공학 버를 개발한 후 독일의 BASF사에 기술을 이전하였다. 또한, 가뭄 저항성 슈퍼 버를 개발해 이를 인도의 마히코사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자신의 학문적인 세계에 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그의 말투에는 자신의 꿈을 굳게 견지해나가는 학자 특유의 명민한 집중력이 담겨있었다. 그는 농업생명과학자로서 불이익을 겪는 것만은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산업체가 아닌, 주로 국가에서 실시하므로 인기에 영합할 필요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갖는다"며 "정부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적을지언정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만족한다"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①